영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바우처택시' 본격 운행

비휠체어 이용객 불편·대기시간 소요 등 해결
기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그대로 운행
기본 요금 500원·1km당 100원·상한가 1천원

영광군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일부터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그대로 운행되고 비휠체어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과 대기시간의 소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택시' 6대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를 활용해 운영되는 방식으로 평소에는 일반승객을 대상으로 운행되다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콜이 들어오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된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운행중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탑승 이용자이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기본 500원, 1㎞당 100원, 상한가 1천원)과 동일하고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이용대상자의 이용 횟수는 1인 일 4회 및 월 30회로, 1회 최대 3만 원까지만 지원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바우처택시'의 도입으로 '장애인콜택시'와 더불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참여 증가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바우처택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 기자

민선 8기 나주시정 새 슬로건 선정
'살기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

민선 8기 나주시의 새 시정 슬로건(목표)은 '살기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로 선정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시정 목표 시민 공모를 통해 '살기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를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시정 방향키를 설정하는 이번 공모에는 나주시의 미래 희망과 비전, 글로벌 시대 에너지수도 나주의 발전상, 12만 시민의 행복·소망 등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문구 총 66건이 접수됐다.

인수위는 '상징성', '적합성', '공감성' 등 심사 기준을 통해 다득표 순으로 최우수·우수·장려(2)상 등 총 4건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작을 비롯해 '내일이 더 희망찬 에너지수도 나주'(최우수), '미래의 행복도시 살기 좋은 천년 나주'(우수), '시민과 하나 돼 빛나는 나주'·'시민과 함께 만드는 나주 대전환 시대'(장려) 문구 응모자들은 별도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민선 8기 슬로건 '살기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는 시정 홍보 및 시청사, 행정복지센터 현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여성구 나주시장직 인수위원장은 슬로건에 대해 "천년의 유구한 역사문화, 남도의 젖줄 영산강, 나주평야를 품은 넉넉함으로 12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질이 최고인 살기 좋은 나주를 만들라는 시민의 강력한 희망을 함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빛가람 혁신도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에너지신산업 메카 등을 아우르는 모든 분야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선도해가자는 윤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기자

담양군, 드림스타트 가정 아동직업체험·가족나들이

담양군 드림스타트는 최근 드림스타트 가정 53명을 대상으로 아동 직업 체험 및 가족나들이를 실시했다.

이번 체험은 가족 외부활동의 기회가 적고 가정의 긍정적 기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아이들에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순천정원박람회 관람 및 잡월드에서의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체험에 참여한 보호자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나들이로 기분전환도 되고 아이에게 본인이 꿈꿔왔던 직업을 더 자세히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아이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드림스타트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험을 통해 아동이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긍정적 자아발달에 도움을 받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드림스타트는 0세~만 12세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장진성 기자

장성군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옐로우시티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을 열었다. 개장식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한종 군수 당선인, 이개호 국회의원, 유관기관·농업인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성군 제공

옐로우시티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장성군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옐로우시티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을 열었다. 개장식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한종 군수 당선인, 이개호 국회의원, 유관기관·농업인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군은 최근 직매장을 임시 개장했다. 정육, 수산, 베이커리, 반찬, 떡, 로컬카페, 푸드코트 등 8개 점포가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직매장이 들어선 북구 오룡동 일원은(광주과학기술원 옆)은 첨단3지구 개발 예정지 인근으로, 12만 명 규모의 소비시장이 형성돼 있어 농산물 판로 확보에 이상적인 입지다. 향후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유통시설이다. 중간 유통과정이 생략돼 생산자에게는 판로 확대를 통한 수익 증가를,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장성 남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해 13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유광종 기자

화순군, 임업·산림공익직불금 신청·접수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지속적인 공익가치 증진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의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임업인은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지속적인 산림자원 관리, 교육이수 등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국·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휴경산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등의 산지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산지 소재 농촌 외 지역거주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소유하고 있는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 대상 산지가 2곳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군은 7월까지 신청을 받고 자격심사 등 조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 11월과 12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많은 임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업직불금에 누락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호경 기자